

제160호

발행일 : 서기 2023년 8월 30일
창간일 : 서기 1969년 5월 1일
재창간일 : 서기 1983년 8월 15일
구독신청 : (02) 2244-3717
(02) 2244-3710
FAX : (02) 2243-1073



발행인 : 김석한
편집인 : 김태영
인쇄인 : 김원희
발행처 : 안동김씨대종회
(우) 02435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 131
홈페이지 : andongkimc.kr
E-mail : andongkimgu@naver.com

물계서원 복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종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은 처서를 지나 여름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대종회를 사랑해 주시고 종사에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내주신 전국의 종중 및 종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종친 여러분!

대종회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물계서원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 각 파종회를 위시한 전국의 예하 문중 및 많은 종친분들께서 아낌없는 성금을 보내주신 덕분에 불과 5개월 여만에 예천군 감천면 덕울리에 약 1,650평의 서원 부지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안동김문 충렬공 후예들의 투철한 승조관념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반가운 소식은 안동.예천 지역구 김형동 국회의원이 발의한 서원 지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물계서원 복원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계서원은 1660년(현종 1년)에 영남의 유림이 우리 중시조이신 충렬공(휘 방경)할아버지 제향 공간으로 설립한 것입니다. 현재 물계서원 추진위원회에서 종친여러분의 관심과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본래의 모습으로 품격있는 서원을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남 최초로 민족지도자 백범 김구선생

을 추배(追配)하는 일과 물계서원 인근에 김구선생 기념관 설립도 추진하면서 관련하여 학술대회 개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충렬공께서 학문을 배우고 무술을 연마하던 안동의 고산정 복원 계획과 뿌리교육을 위한 만화책 발간 등 대종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중점 사업이 있습니다만 종사가 결코 대종회장의 계획과 노력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친 여러분의 한분 한분 관심과 협조,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이끌어 내어 활성화 시키는 것이 대종회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친여러분의 도움으로 물계서원 부지 계약은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넘어야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부대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소요 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모금운동에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안동김문의 단합된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물계서원 추진위원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선조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는 대종회장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루하게 이어지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종친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023년 8월 일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김석한

2023년 계묘년 세일사 일정 안내

향사 선조님	일자		소재지	장소	비고
	음력	양력			
충렬공 (휘 방경)	10.09	11.21(화)	경북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 330	능동재사	대종회 (02-2244-3717)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경북 안동시 풍산읍 회곡리 666	상락재	
문영공 (휘 순)	10.07	11.1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329-1	경모재	김장희 (010-4741-6969)
개성윤공 (휘 칠림)	8.30	10.14(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293-1		김이경 (010-5215-6752)
전서공 (휘 성목)	10.03	11.15(수)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미곡리 496-1	학당재	김재윤 회장 (010-9092-4649)
부사공 (휘 천순)	10.16	11.28(화)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천리 492		김원호 회장 (010-2743-1855)
문온공 (휘 구용)	9.01	10.15(일)	경기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557	금수정	김윤만 회장 (010-2299-6600)
안정공 (휘 구덕)	10.7	11.19(일)	경기 여주시 가남면 송림리 산67		김흥기 회장 (010-4812-1763)
도평의공 (휘 구정)	9.01	10.15(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만취당길 17	만취당	김희윤 종손 (010-3615-5446)
제학공 (휘 익달)	10.06	11.18(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가전1길 198-33	영모재	김규원 회장 (010-5464-9393)
안렴사공 (휘 사렴)	10.05	11.17(금)	충북 청주시 오창읍 모정리 167	영모재	김형남 회장 (010-5480-0135)
익원공 (휘 사형)	10.06	11.18(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1리 214-2	낙포재	김영수 회장 (010-4711-8127)
서운관정공(휘 수)	10.15	11.27(월)	경기 의왕시 포일동 142-5	광곡재	김각영 회장 (010-5341-5100)
정의공 (휘 철)	9.22	11.05(일)	경북 안동시 임동면 중평리 432		김수선 회장 (010-5209-2815)

2023년 하기 회장단, 총무단회의 성료



안동김씨대중회는 8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인성빌딩 4층(김석한 대총회장 사옥) 회의실에서 회장단(총무단)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2시간에 걸쳐 대총회 일반 업무와 안동김문 당면 사업의 진행사항을 보고했다.

태영 사무총장은 진행에 앞서 회의자료를 배포한후 임원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금년에 새로 임원진에 합류한 부회장들에게 대총회장께서 임명장을 전달하였으며, 이어진 회장 인사말씀에서 “짧은 시간 내에 거금을 모금해주신 덕분에 물계서원 부지를 계약할 수 있었으며 우리 안동김문의 단합된 모습과 종친 여러분의 의지에서 물계서원 복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볼 수 있었다.”고 추진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뿌리교육을 위해 상계에서 충렬공까지의 계보를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안전에서 금년 안동시



제는 새로 제정한 제례위원들과 안동종친회, 안동부녀회와 상의해서 진행하기로 했으며 판서공중회 김춘교 회장직무대행의 사직에 따른 비대위원장으로 김영환 고문을 위촉하여 판서공중회를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해주기를 요청했다.

이날 대총회장의 요청으로 회의 중간에 보좌진과 함께 참석한 안동예천 지역구의 김형동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본인이 발의하여 통과된 서원지원법으로 제1호 수혜 대상이 물계서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인사했다.

회의를 마친 후 대총회장께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선크림 하나씩 선물하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전복갈비탕으로 식사를 하면서 대총회 발전과 성공적인 물계서원 복원을 기원했다.

김홍년 의원, 감천면 천향리 물계서원 복원 촉구



▲예천군의의회(의장 최병욱)는 22일 오전 11시 제265회 예천군의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본회의에 앞선 5분 발언에서 감천면 천향리 물계서원 복원을 촉구했다.

김홍년 의원은 물계서원이 350여 년 전 조선 현종 1년(1660년) 감천면 천향리에, 이 지역 유림과 학사 김응조 선생이 함께 건립한 것으로 상락 충렬공 김방경 선생을 주벽으로 척약재 김구용, 허백당 김양진, 학사 김응조를 제향하는 서원이다.

상락공 김방경 선생은 충절의 정신을 심어준 5천 년 역사에서 민족의 명예를 회복시킨 인물 5인 중 1인이라고 단재 신채호는 찬양하였으며, 척약재 김구용 선생은 여말의 학자이자 시인으로 개혁정치의 표상이었다. 허백당 김양진 선생은 청백리로 학문에 밝았으며, 학사 김응조 선생은 영남 예학의 선구자로서 감천에서 말년을 보내신 대학자이다.

이처럼 소중한 문화자산이 고종 5년(1868년) 대원군의 전국 ‘서원철폐령’에 의해 안타깝게도 훼손되면서 물계서원이 본래의 모습을 감춘지 150년이 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물계서원의 복원은 단순히 선현을 기리는 공간이 아니라 군민의 문화향유권 제고와 우리군 문화컨텐츠 산업에 접목시켜 지역경기

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고유의 유교문화 자산이다.

물계는 물한촌에서 발원하여 내성천으로 합류하는 빼어난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다. 석송령에서 수락대를 거쳐 예천박물관에 이르는 감천의 문화유적을 벨트로 관광자원화 하여 ①‘인문 순례길’ 조성, ②템플스테이와 유사한 ‘서원스테이’, ③선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④백범 김구 기념관과 수련원 건립으로 중·고등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성체험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면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 중인 박물관과 함께 지역 관광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 문화컨텐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물계서원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고증을 통해 서원의 복원을 촉구했다.

■ 예천군 감천면 물계서원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의]

물계서원은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에 있었던 조선시대 김방경 등 4인의 선현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한 서원.

[내용]

1661년(현종 2) 지방유림의 공의로 김방경(金方慶)·김구용(金九容)·김양진(金揚震)·김응조(金應祖)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하여 위패를 모셨다. 당시의 경내건물로는 묘우(廟宇)·강당·동재·서재·전사청(奠祀廳)·신문(神門)·정문·주사(廚舍) 등이 있었으며, 봄·가을에 향사를 지내왔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 5)에 훼손되었으며, 지금까지 복원하지 못하였다.

참고문헌 『전고대방(典故大方)』 『경상북도사』(경상북도, 1983)

김형동 의원 발의 '전통서원, 향교 계승·발전 지원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인 '전통서원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대안 반영돼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일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전국 800여개의 서원, 234개의 향교, 성균관은 국가 차

원에서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위한 근거법이 없어 체계적 보존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미래세대에 전승되어야 할 전통서원의 고문서, 목판, 건축물 등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 제기됐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제정안 통과로 서원, 향교, 성균관이 체계적으로 보존·계승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예천 연합뉴스/기자명 이주현 기자〉

안동김씨 역사문화 탐방 및 수련회 후기



안렴사공파에서 주관하고 대종회와 안사연이 후원한 안동김씨 '역사탐방 수련회'가 8월 19일~20일 양일간에 걸쳐 안동, 예천, 오창, 진천 일원에서 뜨거운 여름 날씨만큼이나 많은 종인들의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서울 사당역과 오창, 세종 3곳에서 4대의 버스에 분승한 종인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 상쾌한 공기를 가르며 안동을 향해 마냥 달렸다.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능동에 모셔진 우리 중시조 상락 충렬공(휘 방경) 할아버님의 묘소였다. 더운 날씨에 지대가 높은 곳임에도 모든 종인들이 모여 참배를 하였다. 연로하신 한 종인은 평생소원을 이루었다며 감격하였다. 묘소 참배 후에는 안동김씨역사연구회 김윤만 회장의 해설을 들으며 음수재, 사적비, 단모부비 등 주변을 두루 살펴보고 할아버님의 업적을 기렸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안동에서 종인이 운영하는 패밀리로 마토뷔페에서 맛있고 즐겁게 점심을 했다. 점심을 마친 후 할아버님이 무예를 연마하였던 상락대를 돌아본 뒤 낙강 물길공원에서 한 숨을 돌린 후, 회곡리 냉평국대부인 죽주박씨 할머니의 단소를 참배하고 장군샘의 설명도 들었다.

첫 날의 마지막 코스인 인문정신문화원에 입소하여 숙소를 배정받은 후 전원이 식당에서 반주를 곁들인 만찬으로 경향각지에서 모인 종인간의 우애를 북돋우었다. 만찬 후에는 전 종인이 강당에 모여 안동지역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으로 웃음꽃을 피우며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었다.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서도 이야기꽃으로 담소를 나누며 웃음이 그칠 줄 모르고 날이 새는 줄도 몰랐다.

탐방수련 이튿날 아침식사를 마친 후 우리 안동김문의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 부지를 먼발치서 돌아본 뒤 세금도 자기 이름으로 낸다는 석송령을 돌아보며 비록 나무에 불과하지만 상당한 품격을 느끼며 나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는다.

석송령을 뒤로하고 안동을 떠나 오창을 향해 여름 폭염을 뚫고 내리달렸다. 오창에 도착하여 정간공(휘 영후), 영삼사사공(휘 천), 안렴사공(휘 사렴) 할아버님께 차례로 참배하고 안렴사공파 익원공(휘 사형)

의 뜨거운 형제애를 되새기며 종인간의 우애를 다졌다. 안렴사공 할아버님을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송천서원을 찾아 참배하고 선회 안렴사공파 명예회장의 설명을 듣고 안렴사공 할아버님의 충절을 기렸다.

오창에서 오창을 하고 역사문화 탐방의 마지막 코스인 진천으로 향했다. 진천에서 많은 지역 종친들도 합류한 가운데 한집안에 4명의 충의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일문사충을 돌아보고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큰 공을 세우신 좌찬성공(휘 효건) 할아버님을 모신 희민사를 찾아 참배하고 할아버님의 충의를 마음 깊이 새기며 진천 종인들의 단결되고 열의에 찬 모습을 확인했다.

희민사를 끝으로 1박2일간의 안동김씨 역사문화 탐방 수련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이런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발길을 돌렸다.



이번 역사탐방 수련회는 시인 라이너 마리아릴케의 '당신의 여름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라는 유명한 시가 절로 생각날 정도로 폭염 속에서 치러졌다. 원래 취지는 방학을 이용하여 많은 젊은 학생들을 참여시킬 욕심이었으나 관스레 연로하신 어르신들만 힘드시게 한 꼴이 되었다. 그래도 어르신들의 열의가 넘쳐흘러 조상님들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상락 충렬공 할아버님의 묘소를 참배함으로써 평생소원을 이루었다며 흐뭇해하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모습에서 커다란 위로를 받았다.

이 번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대종회장님을 위시해서 안사연, 문영공 회장님, 안동종친회를 비롯한 지역종친회장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엇보다 엄청난 더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어르신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좋은 전통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앞으로는 젊은이들만의 캠프도 계획을 세워지기를 기대해 보며 후기를 마친다.

2023년 8월 일
안렴사공파 수도권총회 감사(전 사무국장) 김봉진

물계서원 성금 모금에 동참해 주신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8.25 기준)

- ◎ 3천만원
(翼)석한-대종회장(광진)
- ◎ 2천만원
(翼)수원 판결사종중
- ◎ 1천만원
(都)봉회-명예회장, (文英)문영공종중, (文)파중회,
(翼)파중회, 수원 참의공종중
- ◎ 5백만원
(郡)준회-파중회장, 파중회, 광탄종중
(文)영환-총렬기념사업회장, 참의공종중-완산
(按)파중회, 형남-파중회장, (부울경)부산.울산.경남종친회,
(翼)목사공종중
- ◎ 3백만원
(文)경기광주문중, (都)파중회
(翼)효헌공종중, (翼)실경-전대구종친회장
- ◎ 2백만원
(郡)장안종중, (文)포천별제공종중, (安東)종친회, (安)파중회,
(翼)재용 고문, (翼)재남 고문, (翼)문정공종중
- ◎ 1백만원
(郡)성묵-인천, 재이-강진, 중회-부산, 태영-사무총장
(文)윤만-파중회장, 왕용-포천, 용구-광진, 영옥-廣州
(典)재윤-파중회장 (都)향회-대구화랑 (大)파중회-보성
(提)태현-문영공회장, 수도권종중, 규원-파중회장
(按)영만-진천, 철회-안양
(翼)영수-파중회장, 태신-중구, 재택-논산, 재영-수원,
영화·화자·옥늻-대구, 성회-부여, 강식-하남,
수원 봉직량공종중, 강릉종친회
- ◎ 5십만원
(都)정-수도권회장, 원중-법무사, (文)동철-이천,
(大)태권-파중회장 (提)용식-의정부,
(翼)주식-영주, 진섭-대구, 태철-수원, 진수-동대문
태연-인천, 수인-고창, 형식-안산이목종친회

- ◎ 3십만원
(郡)재근-부안, (副)규훈-철원, (文)영윤-廣州, 재만-대구
(都)회수-중랑, 희운-대구(提), 재삼·석응·태완-천안
(按)사부-청주, (正)태형(성립)-춘천,
(翼)동회-석한회장 자, 광일-안동 동수 자, 원회-논산 재택 자
근식-동대문, 경식-이천, 태용-용인, 선회-당진
- ◎ 2십만원
(郡)발용-하남, (文)태경-구로 윤만 자, 천만-廣州, 증평도사공종중
(都)옥수-파중회장, 시걸-부산, 정수-동대문 (提)덕응-공주
(翼)하경-석한회장 女, 호묵-대구 영화 자, 재진-당진
종빈-의정부 영수회장 자, 재천-홍천, 재교-안동회장
정묵-전 대구회장, 우회-논산 재택 자 (?재선-?)
- ◎ 1십5만원
(翼)진현-안동
- ◎ 1십만원
(郡)대용-용인, 만회-파주, (大)재남-나주, 태종-광주
(文)재성-음성, 동호·윤식 父·윤식-양주, 신묵-남양주
태길-안산, 태식-도봉, 윤회·윤정·윤미-대구 재만 子女
(都)재수-의성, (提)윤철-성북, 대응-천안 (正)수진-남양주
(翼)태진·태경·진경-석한회장 孫, 경민-대구 영화이사 女
철회-예천, 홍교·시교-대구, 선교-수원, 보회-수원 재영 자
선회-강화, 동수·지원·태은-논산 재택 孫
- ◎ 5만원
(文)동묵-음성, (提)재응-광진
- ◎ 3만원
(按)태길-은평

성금 모금 계좌안내

안동김문의 숙원사업인 물계서원 복원에 따른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 하오니 우리 후손들은 십시일반의 마음을 담아 다함께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금 모금 계좌번호 국민은행 356201-04-238325 안동김씨대중회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여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7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임원 종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05.21.~2023.08.25)

- ◎ 부회장회비 3십만원
(提)태현(제천), 용식(의정부)
(翼)수인(고창), 성회(부여), 경회(고창), 영화(대구, 3년 선납)
(正)수선(부산)
- ◎ 이사회비 2십만원
(副)태형(철원), (按)사부(청주)
(翼)용묵(청주), 윤묵(중구), 인회(강릉), 선회(당진)
- ◎ 통상회비 5만원
(郡)만회(파주), 준용(인천), (副)태형(대전), (大)태균(용산), (翼)두묵(송파)
- ◎ 통상회비 3만원
(副)하일(성북), (按)태길(은평), (翼)희식(의정부)

- ◎ 통상회비 2만원 (?)춘묵(신길)
- ◎ 찬조금 2십만원 (翼)형식(안산이목종친회)
- ◎ 찬조금 1십만원 (翼)동진(송파), 선회(강화), 수업(고창), 태하(파주)

회비 및 성금 계좌번호 안내

※ 반드시 소속(派)과 이름을 병기하시어 입금하시고
대중회 02-2244-371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원회비(부회장) - 30만원 • 임원회비(이 사) - 20만원 • 평생회비(개 인) - 30만원 • 통상회비(개 인) - 3만원 이상 • 찬 조 금(개인 및 단체) - 제한없음 	<p>국민은행 356201-04-133305 안동김씨대중회</p>
---	--

정 정 공 고 • 찬조금 100,000 - (군)중회-부산
 • 제159호 13면 김동은 · 동은을 김동려 · 동은으로 정정합니다.

총렬공(휘 방경) 일본원정 그 발자취를 찾아서(1)

김윤만(문운공파총회 회장,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장)

《답사여행 개요》

- 일 시 : 2023. 5.12(금) ~ 5.15(월) 3박4일
- 지 역 : 일본 이키섬을 포함한 큐슈 지역
- 주 관 : 안동김씨역사연구회
- 참가자 : 김석한대총회장, 김강식(익), 김영환(문) 부부, 김용묵(익), 김용세(익), 김우식(익) 부부, 김윤만(문), 김천만(문), 김재영(익) 부부, 김준희(군) 부부, 김태길(문), 김태영(군) 부부, 김태용(익), 김태우(군), 김태철(익) 부부, 김형식(익), (22명)

안동김씨역사연구회(회장 김윤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간 대총회 김석한 회장님을 비롯한 안사연 회원 22명(일부 부부동반)이 총렬공(휘 방경)께서 여몽연합군의 고려군 사령관으로 갑술정왜(甲戌征倭, 1274년)와 신사재정(辛巳再征, 1281년) 2차례 일본 원정에 참전하셨던 전적지를 둘러보는 답사여행을 실시 하였다.

지난 2008년 2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여행은 해초여행사에서 주선한 항공편과 호텔, 관광버스 등 현지 가이드 안내에 따라 이키섬을 포함한 큐슈 지역 전적지를 전 경기대 이재범교수의 격조 높은 해설을 들으며 함께 동행하였다. 이재범교수는 고려사를 전공한 학자로 경기대 부총장을 지냈다.

■ 2023. 5.12(금) 첫째 날

첫날 여행지는 후쿠오카 북쪽에 있는 시카노시마[志賀島(지하도)]로 원래는 섬이었는데 지금은 토사가 밀려 쌓이게 되자 연륙교로 본토와 연결 시켰다. '시카'는 사슴이다. 지명처럼 시카노시마에는 사슴이 많았다고 한다. 고대 일본의 신공황후가 우리나라 삼한을 침공할 때 이곳에서 사슴을 잡아 제사하며 전쟁을 준비한 곳이고,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때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기도 하였다.

시카노시마에는 '몽고군공양비' 즉 모코스카[蒙古冢(몽고총)]라 부르는 곳이 있다. 일본군에 잡혔던 몽고군의 목을 베어 만든 무덤이다. 이곳 공양탑은 소화 2년(1927)에 세워졌다. 당시 일본은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한다는 미명아래 일본과 만주(몽골)의 오래 묵었던 감정을 해소한다는 제스처 차원에서 세운 것이다. 원래 비석은 가파른 계단 길을 올라가야 만날 수 있었는데 후쿠오카 지진 때 쓰러져서 윗부분이 훼손된 채 아래쪽으로 옮겨 세웠다. 시원스레 트여있는 모코스카 앞 바다에 700년 전 4,400척의 전함이 가득했을 모습을 상상해 본다.

다음 코스는 현해탄을 한눈에 바라다볼 수 있는 바다의 신사(해신사) 시카우미진자[志河 海神社(지하 해신사)]이다. 이곳은 1차, 2차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때 사령관이셨던 우리 총렬공 할아버님 주요 장지로 알려진 곳이다. 영주들이 봉납한 사슴의 뼈를 본전 계단 옆에 녹각고(鹿角庫)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모코스카[蒙古(몽고총)]

【나고야[名護屋(명호옥)] 성터 및 박물관】

이 교수 설명 중에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일본에게 늘 당하고만 살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딱 한번 일본을 혼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전적지가 바로 이 나고야성이다.”

나고야성박물관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침략전쟁이라고 규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일본과 한반도의 교류사」를 테마로,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약 220점의 자료를 상설 전시하여, 앞으로 한일간 교류 및 우호를 다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입구에는 ‘사가현일한교류센터’라는 현판이 걸려있고 “오랜 교류의 역사 속에는 우호의 시대도 침략이라는 불행한 시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습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논의함으로써 보다 좋은 우호관계를 구축해 나갑시다.”라는 안내문도 보인다.



▲나고야성터

【가라쓰[唐津(당진)]성 과 씨사이드호텔(Karatsu Seaside Hotel)】

가라쓰는 당진(唐津)으로 우리나라도 충남 당진(唐津)이 있어 주목되는 지명이었다. 우리나라의 ‘가야’를 일본어로 ‘가라’라고 발음하는데 ‘한(韓)’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옛날 가라쓰는 한진, 가라진으로 불렀는데 일본이 조선술이 발전하여 당과 직접 교역을 하게되자 한진(韓津)을 당진(唐津)이라 고쳐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가라쓰 씨사이드호텔은 바닷가에 면해 있어 베란다에서 바라다보는 바다의 풍광과 가라쓰 성은 참으로 멋지고 아름답다. 비오는 날의 풍광은 그대로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호텔 인근에는 일본 풍경 5위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니지노마쓰바라’라는 소나무숲이 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 소나무 숲을 산책하였다.



▲씨사이드호텔 베란다에서 찍은 가라쓰[唐津(당진)]성

■ 2023. 5.13(토) 둘째 날

오늘 일정은 가라쓰항에서 이키시마[壹岐島] 인도지[印通寺]항까지 1시간45분 동안 배를 타고 갔다. 이키시마는 쓰시마와 함께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를 잇는 징검다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몽연합군의 일본원정 때도 쓰시마에 이어 초토화 된곳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대륙에 대한 반감이 아주 심한 섬이다. 이곳에는 ‘무쿠리’와 ‘고쿠리’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무쿠리는 몽고, 고쿠리는 고려를 말하는데 이들이 이키에서 잔혹한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라는 것이다. 이키에서는 우는 아이에게 “무쿠리 고쿠리가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쳤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애비! 애비!”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애비’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잘라 간 조 선인의 코와 귀, 즉 ‘이비(耳鼻)’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일본어의 ‘비참하다’는 뜻의 ‘むごい(무고이)’에서 ‘무’는 ‘무쿠리’에서 ‘고’는 ‘고쿠리’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여몽연합군이 사용했던 함선의 닻돌 (우측 석한 대총회장, 좌측 윤만 안사연 회장)

【안코쿠지[安國寺(안국사)]】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안코쿠지에 도착하였다. 일본의 절은 우리나라 절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우리나라 절을 해탈을 위한 수행의 도량이라고 한다면 일본의 승려는 종교인이 아니라 직장인이기 때문에 상주하지 않고, 행사 때 연락이 오면 행사를 주관만 해 준다.

안코쿠지에서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은 아름답리 스기나무와 본전 앞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고 있는 지장보살 그리고 본전에 ‘대웅전(大雄殿)’이 아닌 ‘사자굴(師子窟)’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는 것이었다. 안코쿠지 탐방후 일정상 서쪽의 고노우라(郷ノ浦)항 근처에 있는 이키시마소라는 음식점에서 이끼[오징어]소면으로 이른 점심을 먹은 다음 답사를 계속하였다.



▲안국사 정전 사자굴(용세 고문 뒷모습)

【여몽연합군 최초 상륙지 가쓰모토[勝本(승본)]항】

한마디로 가쓰모토[勝本]항은 큰 어항으로 보였다. 쓰시마를 초토화시킨 여몽연합군은 이키시마 북부 가쓰모토에 상륙하였다. 그리고

하카타 공격에 편리한 세도우라(현 아시베항)를 점령하고자 동쪽으로 진격해 들어갔다. 가는 길에 히츠메성[新城]에서 슈고다이인 타이라노 카게타카[平景隆]가 이끄는 100여기와 전투를 벌였다. 이른바 ‘신성고전장’이다. 바로 옆에 원구 천인총(元寇 千人塚)이 있는 이유이다. 당시 전쟁에서 전사한 일본군과 연합군이 함께 묻혀 있다. 버스 안에서 이 교수의 역사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역사는 서로 싸우고, 보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릴 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함이다.”



【고라이교[高麗橋(고려교)]고전장】



▲문영의 역 고려교 표석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고려교 고전장을 찾았다. 비석을 살펴보면 이 교수의 설명을 들었다.

“이키시마에 상륙했던 주력군은 고려군이였다. 그래서인지 고려라는 명칭이 지명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군이 이곳에 상륙했다면 김방경 장군의 지휘소도 이 부근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신조진자[新城神社]와 신성고전장(新城古戰場)】

여몽연합군이 이키시마에 상륙했다는 소식이 슈고다이인 타이라노 카게타카[平景隆]에게 전해졌다. 카게타카는 가신 100여명을 이끌고 출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참패하고 말았다. 카게타카는 본거지인 히츠메성으로 달아나 끝까지 저항하였으나 결국 히츠메성은 함락됐고 카게타카는 다자이후에 전령을 보내 위급함을 알린 후 목을 매어 자결했다.

타이라노 카게타카를 신으로 모시고 있는 신사가 신조진자이다. 신조진자는 히츠메 성터에 세웠다. 경내에는 카게타카의 무덤과 원구순국충혼탑(元寇殉國忠魂塔)을 세웠고 안내문에는 몽고군이 이키시마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을 상세히 기술해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동쪽 50m 떨어진 곳에 히츠메교가 있고, 이 다리를 건너면 센닌주카가 있다. 지금은 「문영의 역 고전장(文永の役 新城古戰場)」이라 쓴 충혼탑이 천인총 위에 세워져 있다.



【센닌주카[千人塚(천인총)]】

이키시마에는 센닌주카라는 이름의 돌무덤들이 여러 군데 있다.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이 묻힌 무덤이다. 안내문에는 '원정군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죽였고, 코와 귀를 베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여성들을 한곳에 모아 두고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새끼로 엮어 끌고 다니며 즐겼다. 그리고 군선에 묶어 두어 익사시켰다.'는 내용이다. 여몽연합군의 잔학성을 알려 반감을 유도하려는 일본의 속내를 보는 것 같다.

【쇼니코엔[少式公園(소이공원)] 이키진자[叡岐神社(일기신사)] 아시베[芦辺(호변)]항】



▲아시베항에 건립된 쇼니 스케토키[少式資時]상

아시베[芦辺]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쇼니코엔의 이키진자는 쇼니 스케토키[少式資時]를 받드는 신사다. 그리고 이곳은 두 차례에 걸친 연합군의 공격으로 초토화되었던 격전지이기도 하다. 여몽연합군이 하카다로 침공해 들어갈 때 출항지로 추정되는 아시베항을 찾았다. 쇼니 스케토키 동상이 있고, 쇼니 스케토키는 1281년 2차 일본원정 때 연합군에 대항하다 전사하였다.

【이키노쿠라[叡岐の蔵], 인도지[引通寺(인통사)]항】

이번 여행에는 우리나라 주류 명장이신 당진 신평양조장의 김용세 회장님이 동행하시고, 충렬공 할아버님과 안동소주는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로 안동소주 제조법이 쓰시마와 이키시마로 전해진 것이 아닌가 하여 원래 없는 일정이었으나 이키시마 소주 주조장인 이키노쿠라를 견학하게 되었다. 이키노쿠라와 인도지항 안팎에는 이상한 형상의 문양이 걸려있고, 그 문양의 연(鴈)을 판매하고 있었다. 알고보니 귀괘(鬼佩, 귀신 연)라고 한다. 이 귀괘가 이키노쿠라에도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일종의 액막이 용도가 아닐까 생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 엄수



백범 김구 선생 제74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월) 오전 11시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엄수됐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회장 정양모) 주관으로 열린 추모식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종찬 광복회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 회장, 여야 국회의원 등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악대의 연주에 맞춰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숙명여대 합창단의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백범 김구 선생은 1876년 8월 29일 황해도 해주에서 출생하여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이준·이동녕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앞장섰다. 또 1908년 독립지사들의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에 가입해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기울어가는 조국을 구하고자 의병활동과 계몽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김구 선생은 이후 내무총장, 국무령, 주석 등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김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마침

내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했지만 1949년 6월 26일 백범선생의 사자인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조국의 미래를 위해 온 겨레가 애국심으로 하나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던 백범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룩한 바탕”이라며 “선생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되는데 보훈부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찬 초대 국가정보원장은 새로 광복회장에 취임한 것을 고유하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을 의식하여 김구, 이승만이 화해하고 좌우를 구분하지 않는 기념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안동김씨대중회 김석한 회장, 충렬공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 문영공중회 김태현 회장, 익원공파중회 김영수 회장, 대호군공파중회 김태권 회장, 태성, 태용 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 참석했다.

김신 장군 제7주기 추모행사 엄수



(사)김신장군기념사업회(회장 김두만)는 5월 19일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 군악대 선율에 맞춰 김신 장군 서거 제7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

김신 장군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항일 항공독립운동을 펼쳤고, 6·25전쟁에서는 조종사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1952년 1월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에서 '저공침투비행'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술을 창안·적용해

우리 공군의 전투 기량과 위상을 높였다. 전역 후에도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발전에 헌신했다.

이날 식전행사에서는 김신장군의 생전 모습과 기록을 영상자료로 시청하며 추모했고, 이어서 김두만 김신장군기념사업회장은 추모식사에서 “고 김신 장군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하늘을 날며 대한민국 공군의 용기와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분”이라며 “고인을 본받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정양모 백범김구기념사업회장의 추모사가 있었고 현화는 역대 공군참모총장, 윤주경 국회의원, 김신장군기념사업회 임원, 김영수 안동김씨익원공파총회장, 공군장교 및 병사들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안동김문에서는 김태영 대종회 사무총장, 김현덕 대종회 감사, 김태철 문영공종회 총무이사, 김윤만 안동김씨역사연구회장, 김영수 익원공파총회장, 김태연 익원공파총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식이 끝나고 김신장군의 회고록 《조국의 하늘을 날다》, 《김신장군 자서전, 독서 감상문》 1권씩을 받아들이고 컨벤션홀에 마련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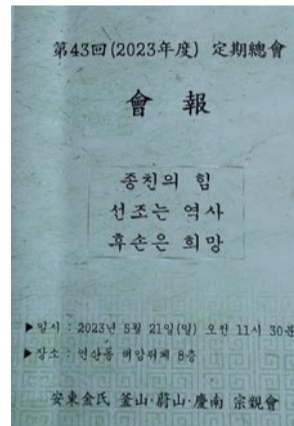
제43회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 종친회 성료



2023년 5월 21일(일요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해암뷔페(8층)에서 제43회 안동김씨 부산·울산·경남 종친회가 40여명의 종친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종친회는 코로나19로 3년만에 열리는 관계로 참석이 저조하지만 다음 번 정기총회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는 (都)김태조 회장님의 내빈 소개와 인사말이 있었고, (都)김희중 사무국장의 회무 및 회계보고에 이어 김정희 감사의 감사보



고가 이어졌다. 그리고 안전 상정 시간에 새로운 회장의 선출이 있었으며, 이 자리에서 김희중님이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감사에는 (冀)김정희고문이 연임되었고, 사무국장에는 (冀)김해수고문이 선임되었다.

새로운 회장단의 인사에서 2023년 더욱 도약하는 종친회를 만들 것을 다짐하고 사진 촬영 후 식사 시간을 가지고 폐회를 하였다.

■ 2023년 제2회 종친회 이사회 성료

2023년 6월 25일(일요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식1번가에서 제2회 이사회(참석자 13명, 의결권 위임 5명)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에서는 신입 임원단의 인사와 2023년 종친회 사업계획(총 7건) 및 기타 토의 사항(3개 안건)과 물계서원 부지 매입에 따른 성금모금 등을 논의하였다. 사업계획 및 기타 토의사항은 박수로 통과 되었고, 물계서원 성금은 5,000,000원을 지출하기로 하였다.

-부산·울산·경남 종친회 사무국장 김해수-

능동재사 관리인 구함.

능동 관리사에 입주하여 충렬공 묘소 및 재사를 관리할 종친(타성)을 구합니다.

그동안 관리해 오던 관리인이 사정으로 가을 농사를 마치면 떠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리사에 입주하여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해 주실(종친.타성)분 구함.

관리사는 2022년도에 새로 리모델링을 하여 쾌적한 상태입니다.

- 명칭 : 능동재사(음수재)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녹전면 죽송리329-2
- 임무 : 재사 및 묘소 관리
- 특혜 : 관리사 무상제공(독거보다 가족입주 환영)
- 농지 : 밭 848평, 논 2,600평(밭으로 경작하고 있음)
※입주자가 원할 경우 농사도 가능.
- 문의처 : 안동김씨대종회 사무처 02-2244-3710, 2244-3717

제학공파 윤지공 소중중 묘원 정비작업 벌려



제학공파 윤지공 후손들의 소중중인 한울회 (회장 태현 문영공중회장)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7월 1일 새로 조성된 제천시 고명동 중중묘원에서 15명의 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묘역 잔디밭의 풀을 뽑고 조경수를 심는 등 묘원 정비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남자 종인은 물론 종부들까지 다수 참여하여 행사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였다.

2021년에 조성된 이 중중묘원은 그간 괴산지방과 제천 시내 각지에 산재해 있던 산소들을 모아 제천시 고명동 산10번지 선영에 10대조 가원(可遠, 참판공) 할아버지(중손 용식 기준) 이하 60위를 한 자리에 모셨다. 묘소 봉안(奉安)은 10대조 고비위 묘만 사각 돌레석과 봉분으로 하였고 나머지는 봉분 없이 평장(平葬)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산소 40기를 이장하였으며 묘소마다 표석을 세웠다.

한편 앞으로 문힐 분들을 위해서 미리 돌판[石版]으로 된 명패 75개를 제작하여 정해진 위치에 배치해 놓았다. 묘원은 400여 평 크기의 규모로 4개의 계단을 조성하였고 맨 아래 하단에는 합동으로 제례를 올릴 수 있도록 제단을 설치하였으며 측면에는 그간의 묘원 조성 경위와 추원(追遠)의 념(念)을 담은 준공비(竣工碑)를 만들어 세워 놓았다.

- 제학공 23세 우옹(禹鏞) 제공 -

충민공(忠愍公) 종친회 개최



2023년 6월 18일(일, 陰 5.01) 오후 1시 서울, 수도권, 제천, 대전 등지에 거주하는 충민공 후손 가족들이 모여 논산 상월면 소재 충민사(忠愍祠)에 모셔진 조상님 여섯분의 고비위(考妣位)께 참배를 올렸다.

-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사과공(司果公) 휘 결(潔) 배우 의인(宜人) 파평윤씨(坡平尹氏)
- 충의위 효력부위(忠義衛 効力副尉) 휘 승석(承碩) 배우 유인(孺人) 파평윤씨(坡平尹氏)
- 문과, 청주목사. 군자감정. 충민공(忠愍公) 휘 흥(欽) 배우 정부인(貞夫人) 옥천김씨(沃川金氏)
- 진사(進士) 휘 강재(康哉) 배우 의성김씨(義城金氏)
- 증형조참의(贈刑曹參議) 행종사랑북부참봉(行從仕郎北部參奉) 휘 응기(應麒) 배우 증숙부인 면천유씨(贈淑夫人 沔川俞氏)
- 문과, 울봉찰방(栗峯察訪) 증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휘 유(瑜) 배우 숙인(淑人) 한산이씨(韓山李氏)

충민공종회에서 김대영, 김정한, 김향순, 김인희, 김재택 등이 참석했고, 전범석·김영희 부부와 딸 전영은, 백운현·김완희 부부와 딸 백주영, 미국에서 나온 김명애, 그리고 박종환·김명숙 부부 등 모두 15명이 참석하여 참배를 마치고 상월면 석종리 죽전가든에서 점심식을 하며 담소를 나누었다. -충민공종친회 총무 김태인-

제431주기 임란공신 추모제향



2023년 6월 1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367-1 소재 호국사에서 임란공신선양회(회장 송재훈)는 황규민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문중 및 후손 100여명과 보령시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31주기 임란공신추모대제를 봉행하고 8년 동안 선양회를 이끌어 온 송재훈 회장의 뒤를 이어 황진수 한성대학교 명예교수를 신임회장

으로 추대하여 그동안 수고해준 황경복·김석창씨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곳 호국사에는 충무공(忠武公) 김시민(金時敏) 장군과 충민공(忠愍公) 김흠(金欽) 선조님이 안동김씨 임란공신으로 모셔져 있으며 충민공 후손인 재택 대총회이사 내외분이 추모 제향에 참석하였다. 충민공(忠愍公) 김흠(金欽, 1537~1592)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거경(居敬), 시호를 충민(忠愍). 조선조 개국공신인 좌정승 익원공 김사형(金士衡)의 7대손으로 증조는 청안현감 김선손(金善孫), 조부는 선전사와 김결(金潔), 아버지는 충의위전도부위 김승석(金承碩), 어머니는 대제학 윤선좌의 따님 파평 윤씨, 배우로 부사 김순필의 따님 정부인 옥천 김씨이다.

공은 선조 16년(1583)에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노산현감, 청주목사를 지냈다.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자감정으로 신립(申砮) 장군과 충주 달래강에서 배수진을 치고 군사를 지휘하여 사력을 다하여 항전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패전하여 아군 장졸들과 함께 원통하게 순절하시니 선조 38년(1605) 선무원종공신 2등에 녹훈하고 가선대부 병조판서를 추증하였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개요(概要)

(文)김영환 총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 : 이하 ‘강리도’로 표현)는 조선이 개국한지 10년이 지난 태종2년 (서기 1402년)에 그린 당대 최고의 세계지도이다. 당시 좌정승 김사형(金士衡)과 우정승 이무(李茂)가 검상 이회(李薈)에게 명하여 중국인 리쩌민(李澤民)의 성교광피도(聲教廣被圖)와 승려 칭전(淸濂)의 혼일강리도(混一疆理圖)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을 더해 새로이 만든 지도이다.

강리도가 세계적 각광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가장 뚜렷한 것은 아시아는 물론 중동과 유럽, 특히 아프리카 대륙을 그렸다는 사실이다. 강리도를 그렸을 당시 유럽에서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이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아프리카가 대양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처음 안 것은 강리도가 탄생한지 86년이 지난 1488년 포르투갈 사람 바로틀로메우 디아스(Barotlomeu Diaz)가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喜望峰, Cape of Good Hope)을 발견한 이후부터이다. 1497년 마누엘 1세의 왕명에 따라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이 희망봉을 돌아서 1498년 드디어 인도에 도착하였다. 콜럼버스(Columbus, Christopher)가 인도로 가려고 대서양을 횡단하다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이니 이미 조선에서 90년 전에 만든 이 강리도를 보았다면 콜럼버스는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로 갔을 것이며 아메리카의 발견을 이루어지지 않아 세계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지금도 남아프리카공화국 국회의사당에는 강리도가 걸려있어 아프리카 남단을 최초로 그린 이 지도에 대해 존경과 감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강리도의 위대성은 또 다른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지도 하단에 적혀 있는 발문(跋文)이다. 발문이란 우리나라의 전통 중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나, 중요한 글, 그림, 문집, 건물이나 사물을 새로 만들었을 때 내용과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다. 강리도의 발문이 있음으로 해서 제작에 참여한 인물, 참고한 자료, 제작과정과 제작일자를 상세히 알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발문을 쓴 권근(權近)의 업적을 칭송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에서 강리도의 위대함을 극찬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강리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것이 아닌 가 필자는 의심한다. 얼마 전에 발간된 김선홍 지음 [1402 강리도]에 의하면 강리도가 ‘나라밖에서는 찬탄, 국내에서는 ‘평가절하’ 라고 아쉬워하고

있는 것은 흘러버려서는 안 될 일이다. 참고로 위 책에서 인용한 강리도 관련 논문이 국내저자 22편, 외국저자 55편인 것 만 보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양식 있는 지리학자들과 강리도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 [지도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 줄기 햇빛같이 희망이 보이기도 한다. 아울러 강리도가 제작된 날로 추정되는 1402년 음력 8월 상순 어느 날을 양력으로 바꾸어 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강리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우리가 세계만방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이 국내외에서 각광을 받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전 세계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칭찬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같은 괄목할만한 발전은 그저 기적이 아닌 유구한 문화가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만들었음을 이미 백범 김구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는데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문화, K-culture가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 그저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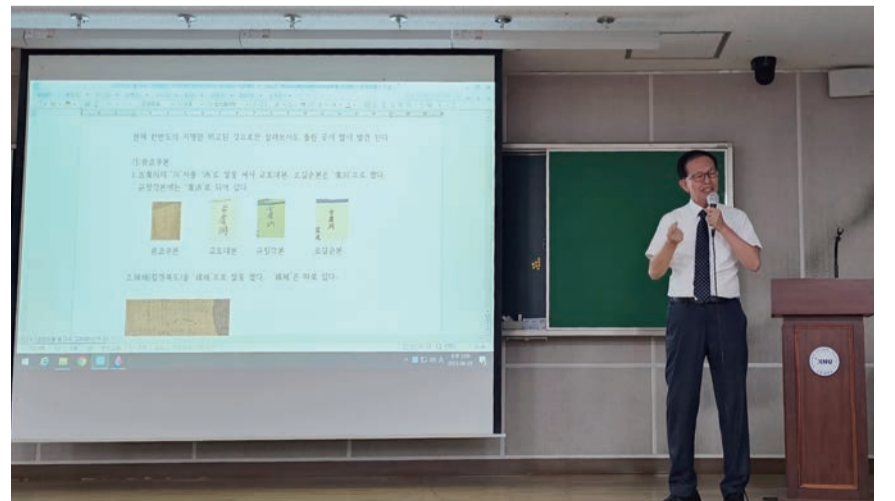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류코쿠(龍谷)대학 소장. (비단 채색 187*245)

강리도 탄생한 9월 첫째 토요일 ‘지도의 날’ 선포



2023년 6월 23일(금) 14:00, 춘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안동김씨역사연구회 회원 30여명을 포함한 관련 학자,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2023 대한지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지도의 날 제정 추진위원회(김현명, 양보경 공동위원장)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매년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지정 법정 기념일 격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다음페이지 계속

익원공 김사형(金士衡) 선조님은 회갑이 되던 해인 1402년 8월 좌정승으로서 우정승 이무(李茂), 검상 이회(李薈)와 함께 세계 최초로 아프리카를 포함한 구 대륙(신 대륙 미 발견) 전체를 그린 전대미문의 세계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이하, 강리도)'를 제작했다. 대한지리학회는 '강리도'를 탄생시킨 날을 양력으로 환산하여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선포식 앞서 지도의 날 제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주제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김영환(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은 발표문에서 “지도 해독 역량과 지리적 소양은 우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세계시민, 문화선진국으로 이끌 것”이라며 “지도의 날은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지도가 갖는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인식하고, 지도의 다양한 지리 정보에 내재된 세상을 살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은 역사적으로 지도는 문화, 교육, 군사, 경제 등 국가 운영 전반에 걸쳐 필수 불가결한 영역이고, “우리 선조는 지도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를 제작했음에도, 우리는 그동안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도 없이 사실상 일부 학자 전유물이었다”며 “한국인이 쓴 최초의 강리도 연구서적 출간을 계기로 지도의 날 제정이 공론화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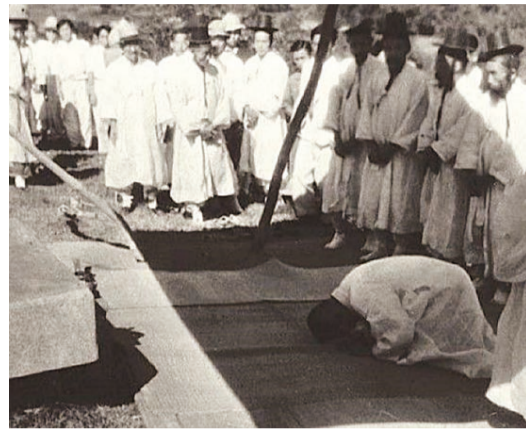
“지도는 세상을 보는 창입니다. 지도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쳐온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적인 지도 강국이었습니다. 유럽의 대항해시대에 바스쿠다가마가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로 가는 직항로를 개척한 것이 1498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약 1백 년 전인 1402년(태종 2)에 우리 선조는 아프리카와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混一疆理歷代國都之圖)》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지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사실적으로 그린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 당대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로서 한국을 넘어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그 세계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겨레의 웅혼한 기상을 그려 넣은 선조들의 지혜를 오늘에 되살리고자 ‘지도의 날’ 제정에 뜻을 모았습니다.… ‘지도의 날’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같은 위대한 문화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선조들의 뜻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도의 날’ 제정 취지문 중에서>

대한지리학회(회장 정성훈)는 김현명 석좌교수(전 이라크대사), 양보경 총장과 17년간 강리도를 연구하여 ‘1402 강리도’를 출간한 김선홍 전 청다오총영사,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김영환 회장, 이정구 전 성공회대 총장, 지도학회, 고지도연구학회, 문화·미술계 인사 등 각계의 전문가 15명의 위원이 지도의 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난 2월 지도의 날 제정 추진위를 출범했었다.

이날 김선홍 전 주청다오 총영사, 양보경 전 성신여대 총장, 김현명 전 주이라크 대사, 김영환 충렬공김방경기념사업회 회장, 이종철 (주)더코더 부사장이 발표를 맡았고, 이시형 전 OECD 대사, 김이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장상훈 국립진주박물관장, 서혜란 전 국립중앙도서관장, 김도균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이 토론을 맡았다.

■ 의암 류인석선생과 백범 김구선생

한편 안동김씨역사연구회(이하, 안사연 회장 김윤만) 회원 30여명은 학술대회 참석에 앞서 승용차에 분승하여 오전에 의암 류인석선생의 유적지인 의암공원 기념관에서 백범김구선생의 친필 고유제문과 고유제문비를 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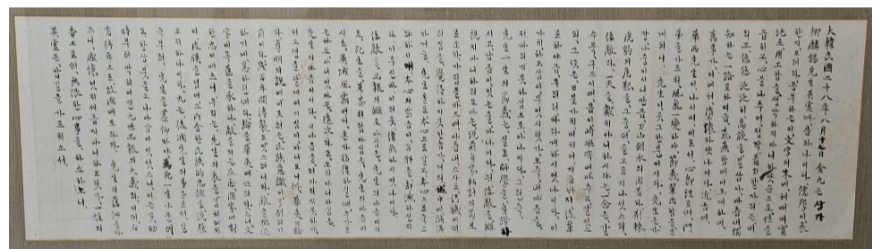


1946년 광복절 이틀 후인 8월 17일 백범 김구선생은 춘천의 의암 류인석선생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고유문을 낭독했다.

“고국에 돌아와 선생의 옛 고향을 찾으니 감회가 어찌 새롭지 아니하오

리까, 향불을 피우며 무한한 심사를 하소연하오니 영령께서는 앞길을 가르쳐 주소서”

중국 각지에서 광복 활동을 하던 백범선생은 광복과 더불어 국내로 들어와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며 의암 선생 묘역을 찾아와 저간의 사정을 고유문(告由文)을 통해 밝히는 한편,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잡는 굳은 다짐이기도 하였다.



▲백범선생 친필 고유문



▲고유문비

이 고유문(告由文)을 등에 새겨 류인석선생 묘역에 세웠다. 1천여자의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진 고유문은 백범선생이 일찍부터 존경하던 류인석선생의 애국충절을 기리는 내용으로 지난 82년 류인석선생의 아들 해동(海東)씨가 숨진후 책갈피에서 발견돼 선생의 증손 연창(然昶)씨가 보관해 오던 것.

화강암 좌대위에 가로1백65cm, 세로76cm, 두께25cm의 오석에 백범선생의 친필 전문을 새겼다.

지중추부사 낙애공(휘 환) 묘소 참배

의암 유적지를 뒤로 하고 이어서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산159에 소재한 낙애공(휘 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기념촬영을 하였다. 낙애공께서 이곳에 영면하시고 280여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많은 종친들이 참배했을 것이라며 후손들이 반겨 주셨다.



▲낙애공(휘 환) 묘소 기념촬영

김환(金緩, 1650~1743) 본관은 안동, 자는 자중(子中), 호는 낙애(樂厓). 판결사공 김효건(金孝建)의 아들이다. 1691년(숙종 17) 증광문과(增廣文科)에 갑과(甲科)로 급제하여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이르고 기로소(耆老所)들어갔다. 94세로 장수하였다.

■어필각 현판



조선조 영조(英祖) 때, 낙애(樂厓) 김환(金緩, 1650~1744) 선조님은 94세까지 장수하셨다. 생전에 무려 8분의 임금을 모셨으며 벼슬은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까지 올랐고, 89세에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라 기로소(耆老社)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92세인 1942년 동지돈녕부

사(同知敦寧府事) 때 영조로부터 호랑이 가죽을 하사받았다. 영조의 총애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데, 낙애를 모시고자 어시(御詩)를 내렸고, 후손들은 어시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필각(御筆閣)을 짓고 어시를 대리석에 새겨 보존했다. 그 어시는 이러하다.

我朝三百年來也 우리 조선조(朝鮮朝)가 삼백년이 되었는데,
 今卿父子半乎哉 이제 경의 부자(父子) 나이가 반이나 되었구려.
 特命陞超有意在 특별히 명을 내리니 뜻이 있다면 관직에 오르시오.
 耆府宜謝朱門開 기로사에서 마땅히 주문(朱門)을 열어 사례하리라.
 ※주문(朱門) : 붉은 색으로 치장한 대문으로 귀족이 사는 고대광실(高臺廣室)을 말한다.

마을 이름이 생긴 유래를 증명하는 어시(御詩)다. 부자(父子)의 나이를 합하여 150년이 넘었다고 했다. 조선조 때에 그렇게 오래 살았으니 가히 기념하고도 남는 일이다.

마을이름은 낙애가 살던 땅이라 해서 낙애지(樂厓地)라 불렀고 오래 산 사람이 살았던 골이라 해서 장수마을이란 뜻으로 목숨 수(壽)자를 쓰는 수동리(壽洞里)가 된 것이다.

이날 춘천의 낙애공 종중에서는 창목회장, 재섭총무, 윤묵, 항묵 전 회장, 진묵, 재호 종친 등이 참석하여 춘천의 대룡산 닭갈비 순매 밀 막국수로 점심식사를 제공해 주셨고, 창목 종친회장께서는 전국에서 정평한 빵집이 춘천에 있다고 하시면서 빵을 구입하여 참석한 30여 모든 회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 지면을 통해 참석한 안사연 회원들을 대신하여 환대해 주신 낙애공 종중과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교사의 재인식

〈전북일보 2023.7.31. / 오피니언〉

김경식 연정교육문화연구소 소장



최근 한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 그것은 바로 한국교육의 현주소인 것 같다. 극단적 선택의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다만 교육부 장관의 '학생인권조례'를 심도 있게 손 보아야 한다거나, 서울시내에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자발적인 추모행사를 가졌다는 기사를 보면, 그 극단적 선택은 대강 짐작이 간다. 우선 그 젊디젊은 여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학생인권조례' 그것은 몇몇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에 의하여 태어난 것이고, 그것은 또한 교수활동에서 교사의 무장해제의 도구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최근 신문 보도와 같이, "아이 모닝 콜해 달라든가, 잡담을 막자 '말할 권리 침해'라는 그 몰지각한 학부모의 언동에서 우리는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인식의 한 켠을 읽을 수 있다. 더이상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다. "선생님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는 그 말도 이제는 옛이야기만 같다.

'교육'은 우리 인간의 삶의 한 장면으로, 그것은 풍토적 생활유형성을 띠고 있기에 한국인에게서 한국교육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의 문화전달이라는 기능은 한국교육의 기초요, 한국교육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이렇듯, 교육의 중요한 기능이 바로 '문화의 전달'이다. 학교교육에서 그 전달은 교사에 의해 주도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권위를 위한 교권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의 질 문제는 차후 문제다. 그것은 꾸준히 개선되어가야 하는 진행형이다. 그 누구도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주도해 가야 할 교사의 권위나 교권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교사가 가정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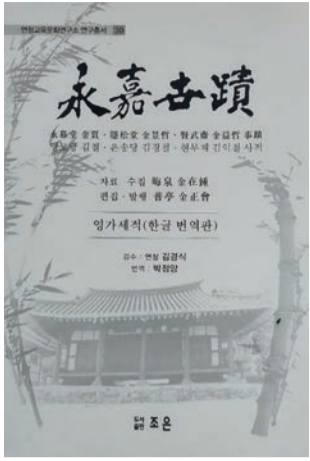
육의 장에 개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학부모는 그 학교교육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후견적 입장에만 서야지, 교수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교육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의 지평(地平)이 있고, 교육의 방법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역사적으로 보면 '모방(模倣)'같이 제일 생명력이 긴 것도 없고, 그와 같이 좋은 교육방법도 없다. 그러니 좋은 교사에 좋은 제자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교육이 정상화되고, 교육의 장(場)이 건전하려면,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한다. 교육의 지평이 기울 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발생한다. 교육의 지평이 반듯해야 학생들은 사방을 바르게 볼 수 있으며, 모든 것을 곧게 들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자기 고유의 자유로운 사유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을 지켜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교사(教師)의 권위(權威)다. 교사의 권위도 교육의 지평이 반듯할 때 바르게 작동할 수 있고,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 지금은! 그 지평은 왼쪽으로 기울고 있지는 않는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은 확보되었는지, 교사는 그의 권위를 위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 학부모는 내 자식을 가르치는 교사를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다.

연정(淵亭) 김경식(金璟植)선생의 고향은 전북 고창으로 성균관대 법률학과를 졸업하고 원광대학에서 교육학박사를 받았다. 군장대학 교수와 한국교육사학회장을 역임하고 연정교육문화연구소장으로 왕성한 저술 활동을 하며 많은 저서를 펴냈다. 보정(普亭) 김정희(金正會) 선생의 손자다.

고창 안동김씨 ‘영가세적(永嘉世積)’ 77년만에 한글 번역 출판



‘영가세적(永嘉世積, 옮긴이 박정양, 감수 김경식, 도서출판 조은)’이 77년만에 한글로 번역 출판됐다.

‘영가세적’은 안동김씨인 영모당 김질선생과 그의 증손 은송당 김경철, 현무재 김익철 형제의 사적 및 은송당 형제를 그의 증조고인 영모당선생을 모신 도암사(道巖祠)에 배향(配享)하는 문제를 둘러 싸고, 배향 논리를 펴는 전라도 각 고을 유림(儒林)의 의견의 제출과 도암서원(고창군 공음면 소재)의 증건축 사항에 관한 각 향교의 건의와 예조판서 및 정부의 하교한 문서 등을 담은 자료다.

특히 은송당과 현무재 형제의 증조고 사우(祠宇)에 배향하는 그 과정의 여러 고을 향교와 유림의 의견제시는 요즘 행정과는 달리 민주적이고 심사숙고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도암사·서원(道巖祠·書院)의 증건축에서는 감수자의 5대조고 만수(晩睡, 휘 榮喆) 선생 의견의 제시하에, 증조고이신 회천(泉)선생이 주도적으로 관장했다.

‘영가세적(永嘉世積)’은 원래 산재(散在)한 자료를 회천선생께서 수집, 발행하시려다가 병환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자, 조고인 보정(普亭 휘 正會)선생께서 서기 1946년 봄에 만수당(晩睡堂: 고창읍 도산리 소재)에서 자비로 출판했다. 원본이 한글판으로 출판되기는 실로 77년만의 일이다. 감수자는 “이제 ‘영가세적’의 한글판을 내놓으니, 후손들은 영모당의 효성과 청렴성 그리고 은송당과 현무재의 효성과 형제간의 우애 및 국가에 대한 충성의 모습을 살펴 더욱 흠모하고, 우리 역시 훌륭한 선조들의 행실을 기리기리 기억해야 하고 전해야 함은 물론, 더욱 조상에 대한 효성과 집안 화목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혹 남 보기에 조상을 잘 모시고 형제는 물론 집안

화목하는 척하면서 불화를 조성하는 종원이 있다면 거짓은 자신을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니, 극히 반성하고 반성하여 조상에 대한 참다운 효성과 집안의 화목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고창군 공음면에는 개갑장터의 옛터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한양에까지 이름이 알려지고 우(牛)시장이 있었던 큰 장터였다고 한다. 최근 들어 조성된 천주교 개갑순교성지(신유박해로 개갑장터에서 순교했던 천주교 신자 최여검을 기념하는 순교성지)를 설명하는 안내판에 개갑장터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을 뿐 장터의 흔적이라고는 없다. 개갑장터는 조선 중종 때 학자로 이름을 떨친 영모당 김질(金質, 1496~1555)선생의 효행에 기인되어 세워졌다고 한다.

그의 지극한 효행은 명나라에까지 알려졌을 만큼 지극했다. 부모상과 조부모 승종상까지 12년의 시묘살이를 했으며 아버지가 좋아했던 꿩고기를 제사상에 올리려고 눈길을 헤쳐 장에 가는 모습에 감동한 고을 수령의 명으로 장이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시장이 열린 이후 개갑시장 일대(500미터의 인근에 석교포구가 있었음)는 크게 번성하였다. 많은 사람과 물산이 집산(集散)하였고 최신의 정보를 가진 상인들이 몰려들어 선진된 문물과 정보가 넘쳐나는 지역이 되었다. 여타 지역보다 개방이 앞서 이루어져서 서남해안 최초의 천주교순교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농민군들이 장꾼으로 위장해 모여들고 훈련하여 갑오년 동학농민혁명의 시발점이 된 무장기포선언의 배후지가 되었다. 또한 구한말에는 의병활동의 물자보급과 연락처로 활용되어 일제의 눈엣가시 같은 지역으로 낙인찍혔고 일대의 지역이 강제로 해체되는 큰 아픔을 겪고 말았다고 한다.

-새전북신문 / 이종근기자-

※《영가세적(永嘉世蹟)》은 보정 김정희 선생이 14대조 영모당 김질 선생과 11대조인 은송당 김경철, 현무재 김익철 형제의 사적을 엮어 소장해 오던 것을 이번에 보정선생 손자인 연정 김경식박사가 감수하여 한글판으로 발간한 것이다.

인물동정

김태련(金泰蓮, 1937生) 아이코리아 이사장



아이코리아(前 새세대육영회) 이사장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 원장

이화여대 심리학교수, 심리학과장
이화여대 사범대학장, 교육대학원장
이화여대부속 중·고등학교장

금란여자중·고등학교장
미국 UCLA 파견교수(한국정부지원)
프랑스Paris대학교 초빙교수(佛정부지원)
김대중대통령 정책자문기획위원
국제소롭티미스트 한국협회 총재 등 역임

홍조근정훈장(2001), 황조근정훈장(2003), 대한민국 혁신경영인 대상(2005), 바른교육인상(2012), 자랑스런 국제소롭티미스트 여성상(2016), 제18회 유관순상, 소롭티미스트를 빛낸 여성상(2019).

익원공파 문정공계 판결사공(휘 효건)의 형님 집안으로 경릉참봉을 역임하신 (휘 경건慶建)의 후예로 태련 이사장의 남동생 태영(泰英, 1945生)씨는 아리수 포럼 (해외동포조직위 위원장) 활동을 하며 오랫동안 미국에 거주하다가 귀국했다. 따님 영선(英仙)씨를 대동하여

6월 20일 대중회를 방문한 부녀는 사무총장의 도움으로 족보를 찾아 보며 이미 다녀온 예천의 조상 묘소 기록들을 살펴보고 영주로 낙향하신 (휘 경건) 후손임을 확인했으며, 안동김씨 7대 대중회장을 역임하신 명회(明會)회장님과 재중간이다.

■ 김경건(金慶建, 1563~1634) 자는 선원(善遠), 호는 운보(雲甫), 父 문과 선균관 병절교위 휘 림(琳), 母 의인(宜人) 예안김씨. 1591년 사마시 진사(進士) 합격, 경릉참봉(敬陵參奉) 역임. 묘소 경북 예천군 용궁면 송암리



▲좌측 영선(英仙) 이화여대 박사과정, 중앙 태영(泰榮) 사무총장, 우측 태영(泰英) 해외동포조직위원장(영선의 父)

인물동정

동원육영재단 김재철 이사장, 한예종에 10억원 기부



동원육영재단 이사장인 김재철(金在哲, 1935) 동원그룹 명예회장은 6월 26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초동 캠퍼스에서 문화예술 인재가 K-소프트 파워 미래라고 하며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10억원 기부 약정을 체결한 뒤 “오늘날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영광 이면에는 예술을 전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도전해 나간 예술인들이 노력이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동원육영재단의 이번 기부 약정은 K-팝과 K-콘텐츠, K-클래식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문화예술 분야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인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김 이사장의 소신에 따라 이뤄졌다. 기부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영상원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1992년 문을 연 한국예술종합학교는 수많은 문화예술 인재를 배출한 세계 정상급 예술교육 기관으로 성장했다”며 “대한민국 문화예술 인재 양성의 허브로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의 인재 사랑은 과학기술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앞서 2020년에는 국내 인공지능(AI) 분야 인재를 키우는데 써달라며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사재 500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은 “동원육영재단의 뜻깊은 기부가 신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과 K-콘텐츠 위상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철 이사장은 군사공파 후예로 강진 군동 출신이다.

인물동정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김명규 종친



‘김명규(金明奎) 경제부지사는 취임 1년이 다가오면서 지난 7월 14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오송 농가 등 피해지역을 방문하며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이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일상이 정상화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김명규 부지사는 제학공파로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의 후손이다. 부친 태홍(泰弘)씨의 1남 2녀중 장남으로 1974년 음성에서 태어나 청주고등학교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노팅햄대에서 경제학,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8년 제42회 행정고시 수석으로 합격하여 2000년에 공직에 입문

하였으며,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장, 행정예산과장, 자금시장과장, 산업경제과장, 종합정책과장을 역임하였고, 프랑스 파리에 소재한 OECD에서도 Economist로 3년간 근무했다.

최근에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실무위원으로 파견되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책기획, 예산, 금융을 두루 경험한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된다.

〈가계도〉
 총렬공 방경-문영공 순-문숙공 영돈-상락백 진-제학공 익달-고-맹령-철균-수형-언묵-석-충갑-충무공 시민-치-득신-천주-가행-한창-서원-제건-유신-명년-정호-상수-희응-태홍-명규

인물동정

김영호 종친 통일부 장관 취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의원공파 영호 종친이 6월 2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통일부 장관 취임식을 갖고 취임사에서 국민적 요구와 변화된 시대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확고한 원칙에 기반한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것이라고 했다. 남북관계의 일시적 부침에 연연하지 않으며, 중장기적 시야를 갖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 내어 자유, 민주, 인권, 법치, 평화 등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표방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김영호 장관은 대한민국 건국, 6·25전쟁의 기원과 전개 과정 등을 연구한 정치학자로 이명박(MB) 정부에서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지난 2월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중장기 통일 방안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연구해온 전문가로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김영호(金暎浩, 會行 - 1959生) 장관은 의원공파 문정공계 득령(得齡)의 14대손이며 아버지 재화(在華)와 모친 이두연(李杜連) 사이에 4남1여중 막내로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버지니아대

학교 대학원 국제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배우자 남미경(南美卿)씨도 미국 조지워싱턴대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한 후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슬하에 1남 태현(泰賢)씨를 두고 있다.

【가계】
 의원공 사형-승-종숙-문정공 질-성동-언-득령-경-국-사봉-필명-두백-정태-노성-홍택-상호-인원-영규-필묵-재화-영호(暎浩, 會)-태현

(주)兩白 문화재
 문화재수리/한옥/사찰/제실
 보수단정업 01-16-0042호

대표이사 김진식
 (총렬공 27세손, 의원공파)

문화재기능자 대목수 제 4459호
 한국미술협회 회원
 한국정승진흥회 이사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5-19(3F)
 TEL. (054)636-1239
 C-P. 010-3507-1239
 E-mail: ddundol@hanmail.net

대중회 부회장 임명

대중회 김석한 회장은 2023년 7월 20일부로 인사를 단행하였다. 부회장에 임명된 분들은 다음과 같다.

■ (典)김재윤 대중회 부회장



전서공파중회는 2023년 7월 이사회를 열고 개인 사유로 공석이 된 전임회장의 뒤를 이어 다음 총회까지 김재윤(金在潤) 감사를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였다. 1945년생인 김회장 직무대행은 초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아버지 준묵(駿默)의 3남1녀중 셋째로 충남 연기군 전의에서 출생하였다. 이후 천안농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농협중앙회에 입사하여 쌍문동지점장, 월곡동지점장 등으로 정년 퇴임한 후, 전서공파 참의공중친회 이사, 처사공파 감사 등을 역임하였다.

祖父 영국(榮國)-父 준묵(駿默)-子 경희(暲會) 女 지영(志泳)

■ (提)김덕응 대중회 부회장



제학공파 소속인 덕응(德應, 會行) 이사를 대중회 부회장에 임명했다. 1952년생인 덕응 부회장은 이조판서를 지낸 만은(晩隱) 김휘(金徽)공의 11손으로 충남 공주 출신이다. 충남대학을 나와 일찍이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내고 '충남화물조합' 이사장과 '공주세종축협' 감사를 지낸 뒤, 고향에서 '웅진농장'을 경영하며 제학공파중회 부회장, 부령공중친회장, 대중회 이사 등을 두루 역임했다.

祖父 영호(永鎬)-父 상오(相五)-子 구성(奎星) 女 은애(恩愛)

■ (按)김태운 대중회 부회장



안렴사공파 수도권중친회는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태성 회장을 대중회 고문에 추대하고 후임에 안원군(安原君) 김공량(金公亮)공의 15대손인 태운(泰允) 이사를 수도권중친회장에 추대했다. 1946년생인 태운 회장은 세종시 출신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안렴사공파중회 이사와 안원군(진천)중친회 회장, 대중회 이사를 역임했다.

祖父 재순(在舜)-父 문회(文會)-子 대식(大植) 女 은식(恩植)

■ (按)김재필 대중회 부회장



안렴사공파 소속인 재필(在潁) 이사를 대중회 부회장에 임명했다. 1956년생인 재필 부회장은 진천출신으로 공무원 사무관으로 퇴직하여 진천숲해설가 운영위원과 진천시민 나침반 운영위원으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진천 일송중회 회장, 생원공파 장관중회 총무, 진천 안동김씨 청년회장, 안렴사공파중회 감사 등을 역임하며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祖父 영근(榮根)-父 용묵(用默)-子 송회(宋會) 女 영희(煥會)

■ (文)김수길 대중회 부회장



대구중친회는 2023년 4월1일부로 김수길(金洙吉, 泰行) 회장을 전임 (翼)정묵(正默)회장 후임으로 대구중친회 21대 회장에 선임하여 안동김씨대중회 당연직 부회장에 추대되었다.

1950년생인 김 신임 회장은 문은공파 사인공계 후손으로 의성 다인에서 출생하여 조부 재영(在溲), 부 인회(仁會)로 이어오면서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다. 중어중문학과 출신인 김회장은 한국미술협회 회원이면서 국제서법예술연합한국본부 회원으로 한중서법교류전을 8차례 갖는 등 크고 작은 전시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대구 팔공미술협회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翼)김영화 대중회 부회장



익원공파 영화(榮和) 대중회 부회장은 1955년생으로 대구출신이며 목사공계로 영의정을 지낸 만보당(晩保堂) 김수동(金壽童)공의 13대손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익원공파중회 이사, 동추공중회 이사, 목사공중중 부회장, 대중회 이사 등을 역임하며 일찍부터 종사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에 적극적이다.

祖父 동우(東禹)-父 우원(祐源)-子 호묵(浩默) 女 경민(勁旻)

■ (翼)김수인 대중회 부회장



익원공파 수인(洙寅, 泰) 대중회 부회장은 1943년생으로 전북 고창 출신이다. 전설적인 효자 영모당 김질(金質)공의 15대손으로 일찍이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정보통신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표창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고 퇴직해서는 파중회 이사, 감사를 역임하고 대중회 이사, 부령공중중 회장을 지냈다.

祖父 재명(在明)-父 만회(萬會)-子 경철(暲徹) 女 윤숙(允淑)

■ (翼)김재택 대중회 부회장



익원공파 재택(在澤) 대중회 부회장은 1945년생으로 임란공신 청주목사 김흠(金欽, 1537~1592)의 12대손이며, 형묵(亨默)의 차남으로 충남 논산에서 출생하였다. 공군(150기)에 입대하여 신림동 공군사관학교 교장 김두만장군(소장)을 모시며 근무하다 하사로 전역하고 한일은행에 입사하여 27년을 근무한 뒤 희망 퇴직했다. 오랫동안 고향 논산에서 충민공중친회 총무로 봉사했고 현재는 익원공파 전침공중친회장을 맡아 종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아들 원희(元會, 1968)는 불가리아 소피아대학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고 외국어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대중회보 원고를 모집합니다.



안동김씨대중회에서는 대중회보(중보)를 년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각 파중회와 중친들께서는 종인들의 미담이나 선조님들의 사료 발굴자료,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 자랑하고 싶은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신고자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제출마감 :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하여 게재할 예정입니다.
- ◎ 제출방법 : 홈페이지, 우편, E-mail: andongkimgu@naver.com
- ◎ 자료제출 : 원고와 사진 등
- ◎ 제출처 : 대중회사무처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131
- ◎ 연락처 : 전화 (02)2244-3717, (02)2244-3710
팩스 (02)2243-1073

서운관정공파(書雲觀正公派)

하당공(荷塘公)종중회

광주-여주지역 묘역을 새로이 단장하다



서운관정공파 하당공종중회가 봉안담(奉安礮) 건립에 따른 기존 묘지의 정비계획과 전통문화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후손들의 참배와 묘지관리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와 여주지역 선조묘역 정비공사를 시행했다.

묘지 정비공사의 대상은 <광주지역>은 荷塘公 김첨(金瞻, 贈承政院都承旨行弘文館校理)의 次男 김정립(金正立, 平昌郡守)계열의 후손으로 김식(金拭, 成均館 儒生)과 손자 김대경(金大敬)은 석물을 새로 설치했고, 증손자 김준(金僑)과 김빈(金賓)은 김준의 묘를 김빈의 묘로 천묘 이장하여 새로이 묘역을 조성하고 돌레석, 상석 비석을 신설했다.

<여주지역>은 지난 5~6월 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했다. 복구공사는 하당공 김첨(金瞻)의 장남 김성립(金誠立, 贈吏曹參判行弘文館正字) 계열로 손자 김대헌(金大獻, 通政大夫戶曹參判) 묘역이며, <여주 금사면 궁리> 소재 김대지(金大智, 贈通訓大夫弘文館校理) 묘에는 새로이 비석만을 세웠다.

<기사제공 (書)김상호 대종회 고문>

시간(時間)의 종점(終點)

-선조(先祖)의 묘를 정비하며 / 청암 김상호

- 1. 어딘지 모르는 표식 없는 0점(零點) 누구도 지나치지 못한다

출발의 신호를 듣고는
긴 한숨의 거친 황야를 달리고
긴 향해의 거친 바다를 헤엄쳐 가고
긴 한숨의 거친 산에 오르면
먼 하늘은 황톳빛을 띤 채
푸른 등대를 켜다

긴 호흡도, 짧은 한숨도 거두는 순간
적막은 눈물을 삼키고 이별의 곡을 한다

- 2. 새로운 출발 신호도 없이 작별의 인사도 없이 애처로운 모습에 달려온 시간의 흔적만을 달고 먼 길을 떠난다

종점, 여기가 생의 반환점인가?

가는 곳은 어디이기에
거기가 어디이기에
그늘진 표식만을 이 땅에 두고
모두가 가야 하는지

- 3. 350년이 지난 지금, 0점 시간에 가신 그분의 모습은 외마디 흑비(黑碑)로 남고 그분의 실체는 한움큼 유골뿐이니 종점을 떠난 그분의 모습은?

나는 낡은 유택을 손질하며 갈길을 가늠해 본다
마음을 담고 마음을 던지고
마음을 세우고 길을 묻는다
시간의 종점을 바라보며.....

❖ 초대합니다 ❖

임진왜란 진주대첩의 영웅 충무공 김시민장군 탄신 문화제에 안동김씨 종친여러분을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충무공김시민장군은 자랑스러운 제학공 후손 으로서 구국의 영웅이십니다.

본 기념사업회에서는 김시민장군님의 업적에 비해 세상에 많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역사 속에 가려져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애국충절 정신을 계승하고 안동김씨 긍지감을 살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신문화제

- 일시 : 2023년9월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
- 주최 : (사) 충무공김시민장군기념사업회
- 후원 : 교육부 · 통일부 · 충청남도 · 천안시 · 충북 · 충남교육청 · 천안교육지원청 · 한국문인협회 · 안동김씨대종회

❖행사내용

- 기념식
 - 축사 :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국회의원 이명수, 문진석, 이정문, 신범철 국방부 차관.
 - 격려사: 김석한 안동김씨대종회 회장
- 탄신 문화공연 : 진도.남도민속놀이문화예술원 출연진 40여명이 출연 하여<충무공김시민 천안에 태어나다> 스토리 전통춤.판굿.모듬북.판소리 공연.
- 전국통일문예작품 시상식
통일부장관상.충남도지사상.천안시장상.충남.충북교육감상. 천안교육장상.한국문인협회 이사장상.
- 출연진 : 육군군악대, 시립합창단, 국가무형문화재 · 남도무형문화재/진도민속놀이 문화예술원 40명.

<오시는 길>

- KTX천안.아산역에서 택시 천안시청까지 기본요금.
- 기차.지하철 천안역에서 천안시청까지 시내버스. 택시 기본요금.